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3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다.”



마음열기

“말 한마디가 버팀목이 되었어요”

“지난주에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지쳐 있었는데, 동료 한 분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요?’라고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해준 건 아니지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옆에 앉아 있어 준 것만으로도”

“얼마 전 가족 문제로 마음이 복잡했는데, 친구가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옆에서 한 시간 정도 함께 있어줬어요. 이야기보다 ‘함께 있어준 시간’ 자체가 저를 많이 지켜줬습니다.”

“기도해 준 순간”

“며칠 전에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었는데, 한 지인이 제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해줬어요. 그 기도가 상황을 바꾼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다시 가지게 했습니다.”

“작은 도움 하나가 큰 위로였어요”

“몸이 좋지 않아 걱정하던 날, 지인이 따뜻한 죽을 집 앞에 놓고 갔어요. 그 작은 배려가 나에게 ‘너 혼자가 아니야’라는 신호처럼 느껴졌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 최근에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줘서 힘이 되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누군가의 마음을 살피고 관심을 가져준 경험, 또는 관심을 받아 위로받았던 경험을 나눠보세요.



나눔

1. 아래 질문들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서로 나누어 주세요.

☞ 당신에게 누군가와 “마음을 함께한다”는 말은 어떤 느낌이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나요?

- ▣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것이고, 왜 그런 어려움들이 생긴다고 생각하는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내가 평소 노력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 ▣ 마음을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 나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 ▣ 공동체가 마음을 함께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나요?
- ▣ 소그룹이 서로 마음을 맞추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예: 경청, 존중, 솔직함, 배려 등)

2.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사도행전 2:42-47

42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43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44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45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46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 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47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 ▣ 42절에서 초대 교회가 지속적으로 힘쓴 네 가지 활동은 어떤 것인가요?

- ▣ 왜 말씀, 교제, 식사, 기도가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 ▣ 44-47에서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난 생활 방식은 어떤 것인가요?

▣ 43-47절에서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것인까요?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남(43절),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밝음(47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짐(47절)

▣ 요즘 누군가와 진짜 교제했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예: 힘든일을 솔직하게 나누고 위로받았을때, 누군가 내 필요를 세심하게 챙겨줬을때, 마음을 열고 함께 했을 때....)

▣ 초대교회와 비교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짚은 부분·부족한 부분은? 초대교회의 나눔과 섬김 중 우리 공동체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 나의 신앙에서 '함께'가 약해지는 순간은?(예: 바쁠 때, 고민이 있을 때, 게을름, 귀찮음, 무관심.....)



적용과 결단

성경 기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중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마음까지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공동체는 함께 살아가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말보다 몸짓, 표정, 어조 속에 숨겨진 그들의 마음을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촉 처진 어깨, 떨리는 목소리, 눈가의 슬픔... 관심 있게 바라보고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서로에게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감의 안테나를 열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분의 공동체는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아픔도, 슬픔도, 외로움도, 기쁨도... 마음 속 깊은 자리까지 함께하는 공동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함께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 내 주변의 작은 신호에 더 민감해지기
- "괜찮아?"라고 한 번 더 물어보기
- 듣기보다 빨리 말하려는 습관 내려놓기

공동체적으로는,

- 누구도 혼자 두지 않는 분위기 만들기
- 서로의 필요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안전한 환경 만들기
- 작은 배려와 관심을 '문화'로 세우기

마음을 함께한다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다가가는 것. 그 작은 움직임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이번 주에 누군가의 마음 옆에 서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